

제7차 국제 식물병리학회의 인상기

정 봉 구

충북대학교

지난 93년 8월 캐나다 몬트리얼 학회의 폐회식때 5년후 영국 에딘바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최 날짜가 도래하여 8월초 한국을 떠나 런던을 거쳐 스코틀랜드의 수도 인 에딘바라 공항에 내리니 오랫동안의 방문이라 감회가 새로웠으며 숙소인 Heriot watt대학(중기기관차의 발명가를 기념하여 세운대학)의 기숙사에서 여장을 풀었다. 그 다음날 8월9일 등록을 마치고 에딘바라 시내를 나가니 마침 그날이 바로 8월 축제기간중이라 가장행열 등 스코틀랜드 특유의 의상과 악기를 붙면서 각 단체가 퍼레이드를 벌여 시내는 시민,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저녁에는 본 학회주관으로 환영파티가 열렸는데 Ingram학회장과 S.cott조직위원장 및 Wood박사(전 런던대 명예교수이고 현 ICPP98 명예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르면서 흥겨운 정취를 느끼고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며 재회한 학자들끼리 오랜만의 만남으로 즐거웠는데 특히 일본, 중국 및 인도학자들은 여러명에 이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참석한 회원이 없고 IRRI에서 온 안상원박사 내외를 만나 반갑게 담소하였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사이에는 심포지움 등 짝짜인 일정속에 월요일 오전 개회식이 Usher hall에서 열렸는데 전세계 90여국 2천여명의 각국 과학자대표들이 모여 회의장을 꽉 채웠는데 특히 이채로운 것은 스코트랜드 왕국의 공주가 식량확보와 식물병리학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개회선언을 한 것이 이채로웠다.

이번 학회의 개최 목적으로서 식물병리학은 인간의 안정적 식량 확보라는면에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은 강조하였고 따라서 우리 식물병리학자들은 세계식량해결과 작물보호로서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식물병에 대한 유전적인 자원으로 이용될 세계 생물자원의 다양성과 그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학회장인 인그렘박사는 지적하였다. 동시에 본 학회의 주요 일정은 심포지움, 포스타 발표, 주제별 야간회의 및 연찬회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제는 5가지로서 첫째 기주식물과 병원체(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특히 분자수준의 연구, 둘째 병원체의 집단 생물학(Population biology), 생태 및 역학에 관한 연구, 셋째 식물병리에 관하여 얻어진 연구결과의 실용화방안(방제법, 진단, 생물적방제, 새로운 벼재배법하에서의 병관리 등), 넷째 식물병리에 관한 기술정보 및 교류에 의한 세계화(병저항성 육종에 활용된 자원식물의 보존 및 다양성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식물병과 종자병), 다섯째 새로운 방제법의 선별적인 적용 다 시말하면 작부체계, 생물적방제, 유전자의 조작 및 신약제 사용에 따른 문제점 고찰 및 분석 등을 주안점으로 하여 약 100여회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이상의 주제를 놓고 세부과제별로 식물병을 좀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학자들간의 의견을 교환,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작물병의 관리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적 식량확보와 환경 보호에 기여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생물적 방제에 관한 3회 걸친 심포지움에서 생물적 방제의 생태적 기초란 제목하에 화란의 Fokkema박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제점으로서 방제효과의 지속성 문제에 의견 공방이 있었고 생물적 방제 전략의 분자수준 연구의 접근이란 제목에서 길항균의 길항력을 증강과 유전자 조작 기술에 관한 깊은 연구의 발표와 와싱턴대의 Cook박사의 주관으로 21세기에 있어서 생물적 방제의 실질적인 전망이란 주제로 미생물제의 상품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주요 토양병에 대한 길항균의 종자처리 효과와 길항균 *Bacillus* sp로 조제된 Kodiak™의 상품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 것등이 새로운 정보로 이해되고 분자 생물학적 연구로 Transgenic식물의 육성으로 어느 특정병에 저항성 유전자를 넣은 품종의 개발 보급이 21세기에는 실용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특별 야간회의의 세계 식량확보와 식물병리학의 역할이란 주제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견해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의 심각성과 현재 세계인구 58억중 8억 이상이 부족한 식량으로 지탱하고 있으며 식물병의 방제로 인한 증산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중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보로그박사의 식물병과 검역 및 식량확보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8월 14일(금)에는 오후까지 심포지움이 계속되었고 저녁에 폐회식에서 성공적인 이번 학회의 폐회를 인그렘학회장이 선언함과 동시에 2003년 2월 제8차 국제 식물병리학회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그 해당국 회장님에게 학회기의 인수와 동시에 뉴질랜드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있는 자콥에릭슨 상에는 미국 미네소타대 출신인 수수병의 세계적 권위인 후레드릭 박사에게 수여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스코틀랜드의 의상과 피리를 불면서 행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어 자리를 바꿔 계속하여 만찬이 열렸었는데 만찬장은 초만원이 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 스코티쉬 춤과 노래를 감상하고 정찬을 들면서 학자들과 마음껏 즐겼다.

· 끝으로 이번 학회에서 수행한 또 하나의 성과는 그간 추진 하여왔던 아시아 지회 창립에 대하여 중국의 Tang박사, 일본의 오우치교수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본인이 아시아 지역 식물병리학회의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2000년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기로 합의한것도 큰 성과라 하겠다. 다음날 8월 16일 역사의 상징인 에딘바라성과 널푸른 잔디를 멀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